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지수, 홍주은, 원미선, 박수현*
을지대학교 간호학과(성남캠퍼스)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isu Lee, Jueun Hong, Miseon Weon, Soohyun Park*
Department of Nursing, Eulji University(Seongnam)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2020년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S 시에 소재한 E 대학교, H 대학교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재학생 165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3학년 재학생은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4학년 재학생은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종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서술통계, 독립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ethod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취업 정보를 대부분 온라인 커뮤니티(37.2%)와 친구 및 선후배(33.0%)를 통해 얻고 있었다.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전공만족도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r=.62$, $p<.001$), 임상실습교육환경과는 다소 강한 양의 상관관계($r=.46$, $p<.001$)를 보였다.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beta=.44$, $p<.001$), 임상실습교육환경($\beta=.40$, $p=.001$), 학년($\beta=.26$, $p=.001$)이 확인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1%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에 따라 달라지며,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교육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rom July to August 2020, a total of 165 junio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in E University and H University in South Korea participated. Third-grade students distributed online questionnaires, and fourth-grade students distributed paper questionnaires while wearing masks, providing hand sanitizers and maintaining social distancing in compliance with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disinfection guidelin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regression. Nursing students got job information through online communities (37.2%) and friends and seniors (33.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higher with higher grades, better personal relationships and higher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jor satisfaction ($r=.62$, $p<.001$)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r=.46$, $p<.001$). The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major satisfaction ($\beta=.44$)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beta=.40$), and grade ($\beta=.26$) accounted for approximately 51% of the variance. Based on the results, an appropriate guide is needed to improve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s considering their grades.

Keywords : Career Choice, Personal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Learning, Environment

본 연구는 2021년 을지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oohyun Park(Eulji Univ.(Seongnam campus))

email: soohyunp@eulji.ac.kr

Received November 10, 2021

Revised December 16, 2021

Accepted February 4,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자신에게 적절한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는 시기로, 먼저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을 탐색하게 되며 이러한 탐색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직업세계에 입문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1].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높은 진로준비행동을 보였을 때 신규 간호사로서 이직률이 감소하고 현실 적응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2] 진로준비행동이 추후 간호사로서 직업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병원 취업으로 진로가 결정되어 일반 전공의 대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러한 진로준비행동 부족은 추후 간호사로서의 업무 만족도와 직업 몰입도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현실 적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5].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심리적 안녕감, 간호 전문직관, 셀프 리더십 수준 및 전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취업 정보, 전공만족도가 있었다[3,6-8]. 다양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연구 중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는 선행논문마다 상이하였다.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3,9,10]가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7],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논문[11]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다른 요인으로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있다. 임상실습교육환경이란 임상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이 환자를 돌보거나 전문적인 임상기술 수행을 위해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적용하게 되는 모든 환경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1)물리적인 환경, 2)간호관리자의 태도, 질적인 지도, 병원 직원과 교직원의 관계 등과 같은 정신 사회적인 환경, 3)교육환경이 포함된다[12-15]. 현재까지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직업에 대한 개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15]. 그뿐 아니라,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진로결정수준,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전공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12,16-18]을 통해 간접

적으로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교육환경,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분석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교육환경,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 S시에 소재한 E 대학교와 H 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79명과 4학년 86명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3학생들에게서 자료를 수집했다. 간호학과의 교육과정 특성상 1, 2학년 학생의 경우 임상실습교육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4를 이용하여 산출했다. 다중회귀 분석으로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 효과크기 0.15, 설명변수 10개(학년, 성별, 취업희망, 지원동기, 진학결정시기, 교우관계, 성적, 임상실습만족도, 전

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최소 표본 수가 147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77부를 산출하여 설문하였고 전체 설문에 불성실하게 답한 12부(3학년 11부, 4학년 1부)를 제외하고 3학년 79부, 4학년 86부로 총 165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진로 준비를 위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19],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목표 실현 과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나 진로 결정 이후 그 결정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행동 등을 포함한다[20]. 본 연구에서는 Choi와 Kim[21]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25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자기이해행동(10문항), 직업능력향상행동(9문항), 직업세계탐색행동(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scale의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아니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2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2.3.2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Kim과 Ha[22]가 수정, 보완한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만족요인(6문항), 인식만족요인(6문항), 교과만족요인(3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요인(3문항)이 이에 속한다. 각 문항은 Likert scale의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아니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Ha[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3 임상실습교육환경

본 연구에서는 Dunn & Burnett[23]가 개발하고 Han[24]이 번역 후 수정, 보완한 임상실습교육환경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개 하위영역의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과 학생과의 관계(3문항), 병동 분위기(3문

항), 간호관리자의 수행(5문항), 환자와의 관계(4문항), 학생 만족(4문항)이 이에 속한다. 각 문항은 Likert scale의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아니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교육환경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문항은 3문항으로 역 환산 처리하였다. Han[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다. 자료수집은 임상실습 일정을 고려해 임상 실습이 끝난 3학년 재학생은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여 진행하였고, 4학년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로 종이 설문지를 배부하여 진행하였다. 종이 설문지의 경우 연구자가 대면 기말고사 시험 후 강의실에 방문해 사전에 설문 협조를 구하였고, 설문지에 작성한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 결과는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하는 연구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목적용 명시동의서를 받았으며 자가 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설문지 작성 시간은 20분이었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177부였고, 설문에 불성실하게 답한 12부를 제외하고 총 165부를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공만족도, 임상실습교육환경,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시행하였다.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교육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method)을 시행하였다. 설문 문항 간 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 값으로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가 간호대학생임을 고려하여 대상자 보호를 위해 자료수집 전 연구의 목적, 설문 소요 시간, 설문의 익명성 보장, 설문 중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철회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공지하였다. 연구 참여 결정은 자발적 의사로 하며,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대상자들에게 서면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조사에 대한 답례로 소정의 간식을 제공하였다. 자료는 암호화하여 처리하였고 연구와 관련된 자료는 연구 종료 시점부터 3년간 보관 후 파기될 예정이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87.9%)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체학기 학업성적은 4.5점 기준으로 3.0 이상 3.5 미만이 76명(46.1%)으로 가장 많았다. 졸업 후 1순위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곳은 113명(68.5%)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응답하였으며,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75명(45.5%)이 높은 취업률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진학 결정 시기는 고등학교 1~2학년이 71명(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우 관계는 125명(75.8%)이 좋음 이상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경험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136명(82.4%)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취업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곳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115명(37.2%)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102명(33.0%)이 친구 혹은 선배로 응답하였다. 지금까지 경험한 임상실습지의 유형 또한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종합병원이 157명(57.9%)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평균 점수는 3.83점이고, 임상실습교육환경 평균 점수는 3.16점, 진로준비행동 점수는 평균 3.37점이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5)

Variables	Categories	n(%)
Grade	Junior	79(47.9)
	Senior	86(52.1)

Gender	Male	20(12.1)
	Female	145(87.9)
Grade Point Average (GPA)	<2.5	1(0.6)
	2.5~3.0	14(8.5)
	3.0~3.5	76(46.1)
	3.5~4.0	53(32.1)
	≥4.0	21(12.7)
The hospital that wants to work after graduation	Tertiary hospitals	113(68.5)
	General hospitals	32(19.4)
	Nursing official	12(7.3)
	A nurse who works abroad	3(1.8)
	etc.	5(3.0)
Reason for choosing nursing	According to the grade	7(4.2)
	Considering aptitude and Interest	58(35.2)
	High employment rate	75(45.5)
	Recommendation from family and relatives	15(9.1)
	A strong sense of service to society	7(4.2)
Time to choose nursing career	etc	3(1.8)
	Elementary school	5(3.0)
	Middle school	21(12.7)
	1 st or 2 nd grade of high school	71(43.0)
	3 rd grade of high school	58(35.2)
Relationship with friends	After entering university	10(6.1)
	Very good	42(25.5)
	Good	83(50.3)
	fair	31(18.8)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ad	9(5.4)
	Very Satisfied	7(4.2)
	Satisfied	63(38.2)
	Moderate	66(40.0)
	Unsatisfied	26(15.8)
Source of job information	Very unsatisfied	3(1.8)
	Academic advisor	25(8.1)
	Career development center in University	11(3.6)
	Friends and seniors	102(33.0)
	Internet job portal site	115(37.2)
	Hospital homepage	34(11.0)
The training site	Family members or relatives	20(6.5)
	etc.	2(0.6)
	University hospital	33(12.2)
	Secondary hospital	157(57.9)
	Semi-general hospital	56(20.7)
	Public health center	25(9.2)

Table 2. Major satisfaction,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165)

Variables	Maximum-Minimum	M±SD
Major Satisfaction	2.06~5.00	3.83±0.53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1.58~4.79	3.16±0.5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64~4.64	3.37±0.55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학년과 교우관계,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3.29, p < .001$), 교우관계가 보통인 학생보다 매우 좋은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높게($F = 7.19, p < .001$)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매우 불만족인 학생보다 매우 만족하는 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F = 3.41, p = .01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Table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5)

Variables	Categor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SD	t or F(p)	Scheffé
Grade	Junior	3.22±0.47	-3.29 (<.001)	
	Senior	3.50±0.58		
Gender	Male	3.26±0.48	-0.96 (.337)	
	Female	3.38±0.56		
Grade Point Average (GPA)	<2.5	3.20±0.00	0.07 (.992)	
	2.5~3.0	3.31±0.41		
	3.0~3.5	3.37±0.65		
	3.5~4.0	3.38±0.42		
	≥4.0	3.38±0.56		
The hospital that wants to work after graduation	Tertiary hospitals	3.39±0.54	0.91 (.460)	
	General hospitals	3.37±0.60		
	Nursing official	3.11±0.49		
	A nurse who works abroad	3.36±0.61		
	etc.	3.59±0.62		

Reasons for choosing nursing	Along with the grade	3.46±0.46	2.03 (.077)	
	Considering aptitude and Interest	3.52±0.49		
	High employment rate	3.32±0.59		
	Recommendation from family and relatives	3.15±0.52		
	A strong sense of service to society	3.08±0.52		
	etc	3.22±0.47		
Time to choose nursing career	Elementary school	3.37±0.59	2.39 (.053)	
	Middle school	3.44±0.60		
	1 st or 2 nd grade of high school	3.48±0.49		
	3 rd grade of high school	3.26±0.55		
	After entering university	3.02±0.64		
Relationship with friends	Very good ^a	3.67±0.50	7.19 (<.001)	a>c*
	Good ^b	3.30±0.49		
	Moderate ^c	3.15±0.51		
	Bad ^d	3.26±0.8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ied ^a	3.75±0.42	3.41 (.011)	a>e*
	Satisfied ^b	3.49±0.55		
	Moderate ^c	3.31±0.52		
	Unsatisfied ^d	3.19±0.56		
	Very unsatisfied ^e	2.81±0.26		

3.3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교육환경,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은 전공만족도($r = .62, p < .001$)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 임상실습교육환경($r = .46, p < .001$)과는 다소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교육환경은 다소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47, p < .001$)(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Major satisfaction,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165)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p)	r(p)	r(p)
Major Satisfaction	1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47 (<.001)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62 (<.001)	.46 (<.001)	1

3.4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로준비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학년, 교우관계,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교육환경을 변수로 선택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94로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성이 없고, 공차(tolerance)의 범위는 .52-.76으로 0.1보다 컸으며, 분산팽창요인값(VIF)도 1.43~1.91로 기준치인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에 과도한 상관으로 인한 추정오류는 문제가 없어 회귀분석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33.53$, $p<.001$), 진로준비행동의 설명력은 51%였다.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화 계수를 파악한 결과, 전공만족도($\beta=.44$, $p<.001$), 임상실습교육환경($\beta=.40$, $p<.001$), 학년($\beta=.26$, $p<.001$)의 순으로 나타나, 전공만족도가 임상실습교육환경보다 진로준비행동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165)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3.26	11.00		-0.30	.77		
Major Satisfaction	0.63	0.10	.44	6.46	<.001	.67	1.49
Grade*	7.18	1.83	.26	3.93	<.001	.70	1.43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52	0.10	.40	5.18	<.001	.52	1.91
Relationship with friends*	-1.95	1.11	-0.09	-1.43	.15	.76	1.33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2.03	1.20	.12	1.70	.09	.57	1.76
F(p)	33.53($p<.001$)						

$R^2=.72$, Adjusted $R^2=.51$

*Dummy variable, SE=Standard error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임상실습교육환경 및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진로준

비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5점 만점 중 3.37점으로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3.31점)와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3.34점)와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25,26].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준비행동 점수(3.14)와 일반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진로준비행동 점수(3.21)보다 높게 나타났다[27,28]. 이는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일반대학생보다 낮았던 코로나 19 상황 이전과 달리 코로나 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 역시 취업의 문턱이 높아져 더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3,6].

교우관계 역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교우관계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교우관계가 좋은 경우 높게 나타나고, 교우관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교우관계가 간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29]. 이는 친구 또는 선배로부터 취업 정보를 많이 얻는 간호대 특성상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받아 이를 진로준비행동에 연결시켜 높은 진로준비행동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교우관계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진로준비행동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0,30]. 대다수의 간호대학생은 임상 간호사로 진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본인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진로를 달성하기 위해 능력 개발에 더 매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30].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기 위해 임상실습만족도와 교우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임상실습교육환경과 학년이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영향

을 주는 요인이었다. 진로준비행동과 전공만족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 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상승함을 보여주어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11,25,29]. 자신의 전공에 스스로 만족하는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진로를 준비하여[31] 결과적으로 높은 진로준비행동을 보이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더 높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입상에 대한 첫인상이 3,4학년 임상실습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첫인상에 크게 영향을 주는 임상실습교육환경은 학생들의 진로행동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임상실습교육환경 중 특히, 간호관리자와의 관계, 병동 및 병원 분위기와 같은 임상실습환경은 간호학생을 임상현장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더 가까워지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환경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간호사로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어 간호사가 되기 위한 진로준비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은 추후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적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32].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 간호대학과 임상현장에서는 임상실습환경에 대한 투자와 재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와 일치되는 실습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노력이 필요하겠다[12,15]. 본 연구결과에 근거해 진로준비행동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년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취업을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경기도 S시에 소재한 E 대학교와 H 대학교의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국한되어 간호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지역의 대학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나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한 제한점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한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전공만족도, 임상실습교육환경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과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았고, 학년과 전공만족도,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전공만족도 향상을 통한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 대학은 정기적인 전공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할 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와 입상을 연결하는 사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과 같이 실습현장을 이해하고 잘 적응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므로 추후 학년을 고려한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년별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비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임상실습교육환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References

- [1] J. I. Choi, T. Y. Han, Y. H. Lee,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of physical education major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23, No.5, pp.113-126, Feb. 2014.
- [2] T. J. Jang,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eagu, Korea, pp.13, 2014.
- [3] T. J. Jang, M. K. Moon,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 No.4, pp.344-352, Jan. 2016.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6.22.4.344>
- [4] K. A. Lee, J. H. Kim,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12, No.2, pp.42-49, Apr. 2015.
DOI: <https://doi.org/10.16952/pns.2015.12.1.42>
- [5] J. I. Choi, T. Y. Han, Y. H. Lee,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of physical education major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23, No.5, pp.113-126, Oct. 2014.
- [6] K. S. Lee, S. A. Ahn, "Effects of nurses imag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2, pp.809-821, Feb. 2017.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7.7.2.076>
- [7] K. N. Kim, S. M. Im, Y. Y. Jang, D. H. Jeon, M. J. Jeong, J. H. Jeong, M. H. Cho,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8, No.2, pp.1450-1461, Dec. 2020.
DOI: <http://doi.org/10.15205/kschs.2020.12.31.1450>
- [8] M. Moon, S. Kim.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2, No.2, pp.162-169, May. 2017.
DOI: <https://doi.org/10.21032/jhis.2017.42.2.162>
- [9] W. C. Hee, "Speciality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Korea, pp.287-288, May 2016.
- [10] E. J. Lee, H. J. Kim, E. B. Park, J. H. Park, M. J. Jeong, J. H. Jeong,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 pp.263-278, Jan. 2018.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8.18.1.263>
- [11] S. H. Han,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7, pp.379-389, Jul. 2018.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7.038>
- [12] Y. K. Oh, E. Y. Kim, "The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self-efficacy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4, No.1, pp.36-43, May. 2018.
DOI: <https://doi.org/10.14370/jewn.2018.24.1.36>
- [13] D. Chan, "Development of an innovative tool to assess hospital learning environment", *Nurse Education Today*, Vol.21, No.8, pp.624-631, Nov. 2001.
DOI: <https://doi.org/10.1054/nedt.2001.0595>
- [14] E. A. Flott, L. Linden,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in nursing education: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72, No.3, pp.501-13, Dec. 2016.
DOI: <https://doi.org/10.1111/jan.12861>
- [15] D. Chan, "Development of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inventory: us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learning environment studies to assess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the hospital as a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41, No.2, pp.69-75, Feb. 2002.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20020201-06>
- [16] C. H. Kim, J. Y. Kim,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learning environment, self-leadership, and clinical practice belong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5-16, Feb. 201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1.5>
- [17] S. O. Shin, "Relation among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7, No.6, pp.19-24, Dec. 2017.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7.7.6.019>
- [18] J. Ha, J. Y. Hong, "Mediating effect of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i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level among university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4, No.1, pp.353-374, Mar. 2013.
DOI: <https://doi.org/10.15753/aje.2013.14.1.014>
- [19] B. W. Kim, "The relationship of resili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woma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3, No.4, pp.93-111, Dec. 2010.
- [20] B. W. Kim,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9, No.1, pp.311-333, Jun. 1997.
- [21] Y. K. Choi, S. H.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5, pp.2085-2097, Oct. 2012.
DOI: <https://doi.org/10.15703/kjc.13.5.201210.2085>
- [22]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 No.1, pp.7-20, Dec. 2000.

- [23] S. V. Dunn, P. Burnett, "The development of a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scal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22, No.6, pp.1166-1173, Dec. 1995.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1995.tb03119.x>
- [24] J. Y. Ha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 No.5, pp.2595-2607, Oct. 2010.
- [25] Y. J. Yang, S. A. Park, "The effects of nursing image,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for nursing students in chungcheong and gangwon areas", *Culture and Convergence*, Vol.42, No.10, pp.903-930, Oct. 2020.
DOI: <https://doi.org/10.33645/cnc.2020.10.42.10.903>
- [26] M. K. Ahn,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military duty plann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93-102, Feb. 201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1.93>
- [27] E. H. Kim, B. W. Kim, "A study on the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ender role identit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29, No.4, pp.165-183, Dec. 2010.
- [28] S. W. Lim, H. S. Jung, M. S. Song,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rofessor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4, pp.386-395, Apr. 2021.
- [29] H. S. Hyun, Y. Y. Kim, "Moderating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1, pp.29-38, Feb. 201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1.29>
- [30] M. J. Chae, H. J. Jung,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0, No.3, pp.213-222, Sept. 2016.
- [31] J. W. Lee, N. Y. Lee, Y. S. Eo,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 pp.311-320, Jan.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311>
- [32] S. G. Lee, J. K. Lee,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1, No.3, pp.1-25, Sept. 2008.

이 지 수(Jisu Lee)

[준회원]



• 2018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성남) 간호학과 학사과정

<관심분야>

성인간호, 간호교육

홍 주 은(Jueun Hong)

[준회원]



• 2018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성남) 간호학과 학사과정

<관심분야>

성인간호, 간호교육

원 미 선(Miseon Weon)

[준회원]



• 2018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성남) 간호학과 학사과정

<관심분야>

성인간호, 간호교육

박 수 현(Soohyun Park)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학사)
- 2003년 12월 : 미시건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10년 8월 : 미시건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성남)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신경계 간호, 재활